대전주보

2025-2028 사목교서 표어 | 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

발행 김종수(제2841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부사리공소(서천서면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3년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 2025년 5월 11일(다해)

제1독서 사도 13,14.43-52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묵시 7,9.14ㄴ-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27-3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청년 사제성소 "쿼바디스 모임"
5월 17일(토) 오전 10시
교구청 4층 성소국

함께 피워내는 작은 꽃 성소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향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강우 알베르토
병원사목 전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은 성전 봉헌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산책하고 계실 때 유다인들이 몰려와 예수님과 유다인들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서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유다인들이 질문합니다. “왜 신성모독을 하고 하느님 행세를 하느냐?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정독해 보면 착한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목자의 목소리를 믿고 따르는 양들과 반대로 목자를 믿지 않는 양들 사이에서 답답함과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복음과 제1독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며 회당에서 복음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生과 死가 공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病院입니다. 병원에서 원목신부로 근무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한 신자 환우와 보호자들의 눈빛과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을 성찰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원목신부는 환우들을 외래와 병실, 응급실, 수술실 입구, 중환자실, 장례식장 빈소에서 만납니다.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봉성체와 병자성사와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코로나(3년)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본당신부님도 중환자실에 입실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환우들이 결국에는 방호복을 착용한 병원에서 허가된 원목신부 만나서 병자성사를 받는’ 독특한 체험을 했습니다.

간혹, 복음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처럼 원목신부를 소가 닭 쳐다보듯 하는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기간 중 한 번의 봉성체에도 어떤 환우는 시로페니키아 부인의 간절함과 예수님께서 열 사람의 나병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감사 인사 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신부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한 마디에 사목적인 위로와 보람과 하느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한편으로,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병원에 수십 번씩 들락거리는 119차량 덕분에 원목신부도 119대원과 비상 대기하는 경찰이 되는 체험입니다.(stand by) 왜냐하면, 신자 환우들에게 병자성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본당신부님과 긴급한 보호자분의 의뢰로 각 본당 위령회장님, 사무장님께서 병원 원목실로 연락을 주십니다. 원목실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면 저는 그날 0시 이전까지는 신속하게 병자성사를 집행합니다. 생명의 주도권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환우들은 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싫어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길 빕니다.”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5월 12일(월)~17일(토) 오전 6시 50분 관평동 보좌 김도원 신부 편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2: 미사 참례의 의무

> 제1246조 ①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 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 대축일도 지켜져야 한다.
> ②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대축일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 모든 의무 축일이 국가 공휴일입니다.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국가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가톨릭 국가의 현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제2항의 규범에 따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교회에 적용할 의무 축일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5조: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한국천주교회는 흔히 4대 의무 축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목지침서에 부활 대축일은 빠져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은 의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부활 대축일은 모든 주일 안에 포함되니까, 주일이 아닌 다른 세 개의 대축일만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주일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주일미사를 빠졌을 때와, 우리 자녀가 세상에 처음 귀하게 내실 때 하느님께서 바라셨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 언제가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더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미사를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성체를 귀하게 모시고, 그 힘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당신이 계속해서 함께할 테니 같이 하자는 초대가 바로 주일미사의 의무인 것입니다.

주일미사의 의무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교회의 배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마음껏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귀하게 받아 모신 거룩한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솔 노엘 신부** 사회복지국 차장

공동체로 스며드는 생태 사도들

'일상이 된 재난' 공동체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합니다 – 문서영 말가리다(갈마동본당)

작년 여름 큰 비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주민들은 극한 공포에 떨었고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절차는 더디기만 했다. 게다가 복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지원이 끊겼다. 가재도구가 다 떠내려간 상황에서 도시락 지원이 끊기자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공동식사를 시작했다. 수해는 슬픔과 좌절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함께 가져왔다. 하지만 공동식사를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복구과정, 제방이 무너지던 날의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수해의 아픔을 달랬다.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공동식사는 두 달을 훌쩍 넘겼다. 주민들은 "수해를 입었지만 함께 밥 해 먹고 일상을 나누는 걸 언제 해 보겠나, 다시 예전의 행복한 정뱅이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얘기했다. 정부 지원의 한계에 마주한 상황에서 주민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호혜와 나눔은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지금 산불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아려온다. 재난은 혼자 극복할 수 없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회복과 공동체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역의 공동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정뱅이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고, 생태환경위원회는 2024년 창조 시기에 정뱅이마을 주민들과 함께하였다.

36. 성모의 밤 합당하게 봉헌하기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높임을 받으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교회헌장 6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드려야 할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례헌장에 나와 있는 복되신 동정녀께 드리는 공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축하는 이 주년을 지내는 동안 성교회는 천주의 모친이신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한다. 마리아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당신 아들의 구원 사업에 결합되어 있다. 교회는 마리아 안에서 구원의 숭고한 열매를 경탄하고 찬미하며, 교회가 스스로 온전히 갖추고자 하는 가장 깨끗한 모습 속에 계신 마리아를 닮으려고 희망하며,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전례헌장 103항)."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은 성모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깊이 참여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힘과 의미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복되신 동정녀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미리 보시고 참여하신 구원 업적을 경축하도록 인도합니다.

가톨릭교회는 특별히 5월을 성모 성월로 정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특별한 전구와 은총을 간구하게 함으로써 성모 신심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5월에 봉헌되는 성모의 밤은 이러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경축하는 신심 행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5월과 성모 성월을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티야의 왕 알폰소 10세(1221~1284)입니다. 그는 5월을 성모 성월로 지정함으로써 자연이 주는 풍성함과 성모님의 영성을 연결하여 기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1942년 5월 서울 백동본당(현 혜화동본당)에서 최초로 성모의 밤을 거행했고, 1945년 5월 20일에는 서울 종현본당(현 명동주교좌성당)에서 거행함으로써 점차 대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모 성월에 성모의 밤을 봉헌하고 거행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구원에 구체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례주년을 고려하여 봉헌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모의 밤을 미사와 함께 봉헌하려 한다면, 반드시 전례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사목적인 이유로 당일 전례력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주일미사를 대신해서 성모의 밤을 미사와 함께 봉헌하려는 모습들은 분명 잘못된 신심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 공경이 마치 그리스도께 대한 공경을 감소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모시고 공경함으로써 성모님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세종도원 주임

제11회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 미사와 성모의 밤

- 일시 5.30(금) 17:00~21:00
- 장소 진산성지
- 주례 총대리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
- 주관 중부지구(진산성지)

일정
17:00 야외공연
18:00 저녁식사
19:00 성모의 밤
20:00 순교자 기념 미사(성당)

단체 식사 또는 소모임 식사는 5.23(금)까지 신청 바람 / 문의 : (041)752-6249, 010-6579-6249

교구알림

2025 찬미받으소서 주간 기념미사와 탄소중립인증서 수여식
- 때·곳 : 5.26(월) 19:30, 문창동성당
- 주례 :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 2025년 찬미받으소서 주간 : 5.24(토)~31(토)
-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전담사목

대전ME 제 11차 쇄신주말
- 때 : 5.17(토)~18(주일)
- 곳 : 수리치골 피정의 집
- 자격 : ME주말을 경험 후 1년이상 경과된 모든 부부
- 참가비 : 부부당 23만원
- 문의·신청 : 주말후분과 김영권(사도요한) 권화주(스콜라스티카) 부부 010-6415-0174, 010-5480-5175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청년 떼제기도
- 때 : 5.14(수) 19:3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함께 기도할 청년 누구나
- 내용 : 떼제기도, 나눔
- 진행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황무실성지 미사
- 매월 첫 토요일 (3월-11월) 오전 11시
- 우천시 본당에서 미사
- 주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013
- 문의 : 신합덕성당 (041)362-5947

노인사목부 5월 모임 (시니어 봉사자 아카데미)
- 때 : 5.19(월) 10:00~14:00
- 곳 : 대전교구청 명례방
- 대상 : 본당 노인분과 및 노인대학 담당자
- 신청·문의 : (044)270-3066, 010-6411-0360

대전교구 장애인 사목부 발달 선교회 미사
- 때 : 5.24(토) 11:00
- 곳 : 장애인 사목부(대전 대덕구 오정동 334-16)
- 대상 : 교구 내 발달 장애인 가족 (대전, 천안, 세종, 공주 등)
- 내용 : 발달 장애인 가족 월례 미사, 소모임, 식사
- 매주 토 11시 미사 봉헌
- 문의 : 장애인 사목부 (042)637-1838

젊은이 성령기도회
- 때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미사있음)
- 곳 : 새얼센터(대전시 유성구 지족로306)
- 대상 : 교구 젊은이 누구나
- 주최 : 아자리야 선교단
- 문의 : 카톡플친[아자리야], (042)824-6773

신상옥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아자리야 초대석
- 때 : 6.17(화) 20:00 (미사있음)
- 내용 : 미사, 말씀, 찬양
- 곳 : 새얼센터
-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 문의 : 카톡플친[아자리야], (042)824-6773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가톨릭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무료상담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 상담방법 : 내방, 전화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2036, 624-3288

송봉모 신부의 1박2일 영성피정
- 때 : 6.7(토)~8(주일)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11만원
- 문의 : 010-8848-5690

2025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6.5(목)~9(월) 일본 나가사키현 고또 (5일) 195만원 (아시아나항공)-추천 (나가사키, 하오도, 상오도, 오무라)
- 6.10(수)~21(주일) 발칸3국 오스트리아 순례 (12일) 499만원 (대한항공)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예,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 7.14(월)~25(금) 코커서스 3국 순례 (12일) 560만원 (EK항공)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맞춤형 순례 가능
- 문의·신청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분도여행사 (02)852-8525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대상 : 성인, 청소년, 아동(종교 무관)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제 15차 포스트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 때 : 5.24(토)~25(주일) 1박2일
- 곳 : 정하상 교육회관
- 참가비 및 인원 : 10만원 남여 혼성 60명
- 자격 : 꾸르실료 교육 수료자로 주임신부와 울뜨레야 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

대전 가톨릭 음악 선교단 '더 위드' 단원모집
- 파트 : 악기, 보컬
- 자격 : 생활성가를 좋아하는 20~40세 천주교 신자
- 곳 :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744-7482 (김현주 시몬)
- 참고 : 인스타 @the_with_2006, 유튜브 @thewith3340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44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 국가 : 필리핀
- 대상 : 가족, 성인&대학생
- 내용 : 가족캠프, 어학연수&해외봉사
- 문의 : 국제교류팀 (053)593-1273

사이버성경학교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이벤트
- 대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이
- 신청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컨텐츠
- 문의 : (031)360-7635, 010-7470-7966

마음정원 책 읽는 방
- 책을 통해 자기내면과 깊이 만나는 시간 (한 달 한 책 읽기)
- 때 : 6.3(화)~24(화)(4주) 오전반 10:00~11:30 / 오후반 13:30~15:00
- 진행 : 온라인(줌) 진행 / 4만원
- 문의 : (042)862-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모집
-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초3~고1
- 문의 :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국악성가 한밭합창단 단원모집
- 지도 : 강수근 신부
- 지휘 : 황승현(대건안드레아)
- 연습 : 매주(월) 19:00 하기동 성당
- 문의 : 합창단장 최재철 010-5452-5482

킴벨 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1588-5675 정부청사역 2번 출구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7인 진료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

소식

강수근 신부와 함께하는 국악성가 배움터
- 대상 : 대전교구소속 신자, 성가대
- 지도 : 강수근 신부
- 때·곳 : 6.14(토) 10:00~18:00, 대철회관
- 참가비 : 6만원 (교재, 중식 포함)
- 문의 : 국악성가연구소 010-2279-0255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 캐나다 : 토론토대 기숙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IVY리그 탐방
- 미국 : 공립대 1위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등
- 영국 : 교육 명문 옥스퍼드 기숙캠프,
  손흥민 토트넘, 해리포터, 서유럽투어
- 문의 : (02)734-0999, www.pbccamp.com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 전화 : (02)2274-1843,4 www.cdcc.co.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곳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문의 : 010-3645-9028

아들러의 심리이론과 실제
- 아들러의 심리 이론 기반의 상담사 양성과정
- 상담 관심자, 심리이론 관심자 모두 참여가능
- 때 : 6.2(월)~7.7(월)(6주) 19:30~22:30
- 진행방식 : 줌으로 진행 (온라인)
- 문의 : (042)826-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수도회 및 피정

원어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헬라어: zoom)
- 때 : 2025년 7월부터 12개월 (수) 19:30~21:30
- 회비 : 30만원 x 4회 (총 120만원)
- 문의 :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강우일 주교와 함께 '푸른꿈 제주섬' 피정
- 제주섬에서 쉼, 순례(성지, 자연), 말씀초대
- 곳 : 성이시돌 피정의집 (한국통합사목센터)
- 때 : 6.9~11, 9.18~20, 10.30~11.1, 11.11~13
- 대상 : 개인, 가족, 단체, 본당(사목위원, 구반장)
- 문의 : 010-9670-9775, 010-7200-4567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마르 10,49)
- 수도성소의 뜻을 가진 미혼 여성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 문의 : 한국성모의 자애수녀회
  010-7387-6219

일반인들을 위한 수도생활 배움피정
- 1차 : 6.27(금) 15:00~29(주일) 13:00
- 2차 : 7.11(수) 15:00~13(목) 13:00
- 곳 :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 25만원,[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 010-6791-0071(문자)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 5.23(금)~25(주일)
- 효소단식 : 5.29(목)~6.1(주일), 6.26(목)~29(주일)
-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예레미야서
  : 6.6(금)~8(주일)
- 문의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주방근무자 모집 문의 : 010-3401-5541

향심기도 기초, 심화 피정
- 때 : 6.2(월) 15:30~4(수) 점심식사
- 곳 : 논산 씨튼 영성의 집
- 문의 : 한국 관상 지원단
  강효주아네스 010-3993-3800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 때 : 수시
- 대상 : 한반도에 머물긴 아까운 그대
- 곳 : 서울 성북동 본원
- 문의 : 010-8715-2846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 때 : 5.17(토) 14:00
- 곳 : 개화동 수도원(서울)
- 문의 :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 때 : 매주 목 20:00~21:00
- 대상 : 20~45세 미혼 여성
- 문의 : 010-9353-1773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강사 / 내 용	차량운행 / 비고
성령강림대피정	5.12(월) 09:30	박성준 신부(서천성당주임) 기도회, 말씀, 미사, 안수 등	지족역2번 출구 09:20 대기출발
성모의 밤	5.15(목) 19:00	성모의 밤 미사, 초봉헌 등	지족역 2번 출구 19:10 대기출발
은혜의 밤	5.22(목) 19:00	박재형 신부(글라렛선교수도회) 말씀, 미사, 안수 등	
천안아산지구 성시간	5.16(금) 13:30	김기범 신부(성령쇄신봉사회 전담) 성시간, 묵상, 미사, 안수	곳 : 천안청당동성당 문의 : 010-9697-6772, 010-4152-2662
천안아산지구 말씀피정	5.23(금) 13:30	최영준 신부(작은형제회) 말씀, 미사, 안수 등	

한끼100원나눔운동
2025년 사랑의 온도현황

25°C

총 모금 250,615,214원

[4.18~23 모금액] 3,353,746원
본당 2,026,660원 / 개인 · 기관 · 행사 : 1,327,086원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0/3 홍성남 신부님 중앙아시아 498만원
10/7 추석 홍콩, 마카오 189만원
11/10 멕시코, 페루 795만원
신청·문의 T. (02)2281-9070www.cttour.org

정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의과 협진)
병원장 정주영(요한) / 김서연(프란치스카)
중풍재활 / 수술 후 재활 / 교통사고 / 도수치료
365일 진료,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타임월드 도보 1분 T. (042)486-6000

성심 종합환경
에어컨청소 청소용역
건물위생관리 방역방제(감염병, 드론방제)
T. (041)575-7905, 010-4828-7905

희소 성형외과
대표원장 : 임정수(미카엘)
성형외과 전문의 / 의학박사
눈, 코, 거상, 수술 및 쁘띠 시술
T. (042)721-7600 / 갤러리아백화점 맞은 편

분도여행사 성지순례
7/8 북유럽 11일
7/14 코카셔스 3국 12일
문의 T.(02)852-8525www.bundotour.com

- 제작년도 2024년
- 크기 301X356x11cm
- 재료
  판석유리(Dalle de verre)
  색유리(Antique Glass)
  동(Bronz)
  스텐레스스틸(Stainless Steel)

스테인드글라스 이야기 (32)

인천교구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 경당 출입문
「빛이 되다 -이승훈 베드로 성지」

손승희(손소벽 막달레나) 유리화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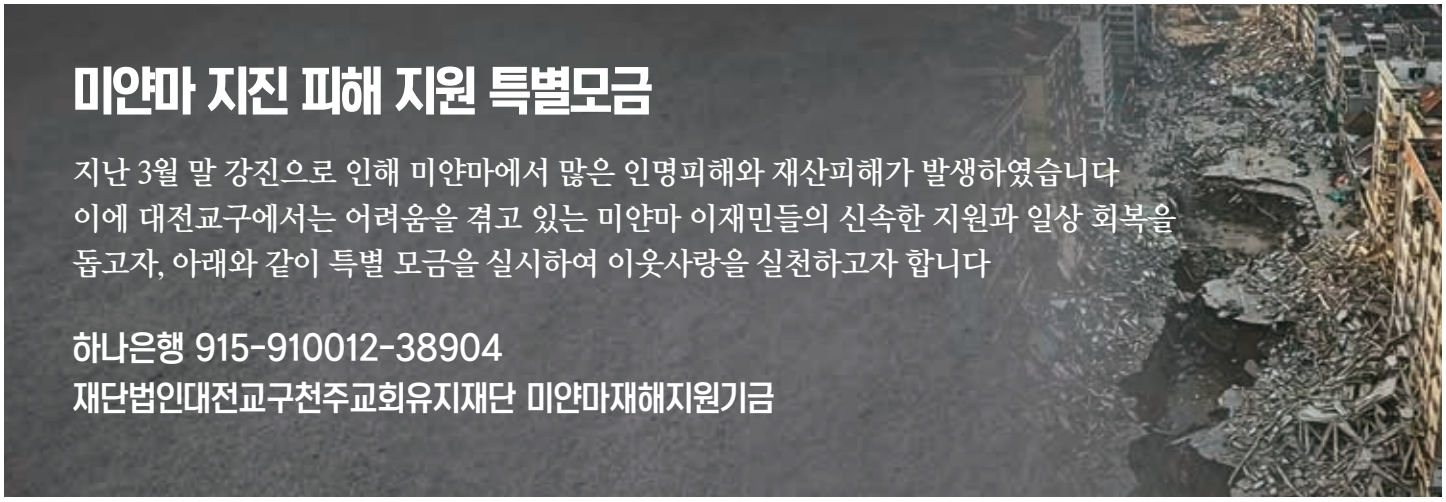
- 제작의도

이 문은 한국 최초로 중국에서 가톨릭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경당의 출입문입니다. 문을 이루는 붉은 유리는, 우리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닮아 피와 땀, 심지어 죽음으로 지켜낸 신앙을 상징합니다.

중앙을 흐르는 붉은 빛은 예수님의 피흘림을, 그 주변에 배치된 맑고 다채로운 빛들은 죽음 속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신앙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빛으로 다시 태어난 이 열매들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경당의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이는 믿음과 기도로 거듭나야 하고, 이 문을 나서는 이는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라는 부르심이 이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문 앞에서 묻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선조들의 신앙에 응답할 것인가?"** 기도하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모두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지진 피해 지원 특별모금

지난 3월 말 강진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전교구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이재민들의 신속한 지원과 일상 회복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 모금을 실시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 915-910012-38904
재단법인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미얀마재해지원기금

대전직장직종사목부 과학의 날 미사

대전직장직종사목부(전담 허승현 신부)는 4월 24일(목)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죽동성당에서 한정현 주교님 집전으로 공동체회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했다.

제165차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제165차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을 4월 24일(목) 판암동성당에서 했다.

60여 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미사가 봉헌된 후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주제로 문현웅(대철베드로) 변호사 특강이 이어졌다.

파스카 성야 미사,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와 세례식

궁동본당

공주신관동본당

배방본당

둔포본당

버드내본당

세종성요한본당

천안구룡동본당

합덕본당

전민동본당

천안원성동본당

장애인사목부

생태환경위원회

대전모이세

천안모이세

대동본당

원신흥동본당

세종성베드로본당

선화동본당

관저동본당